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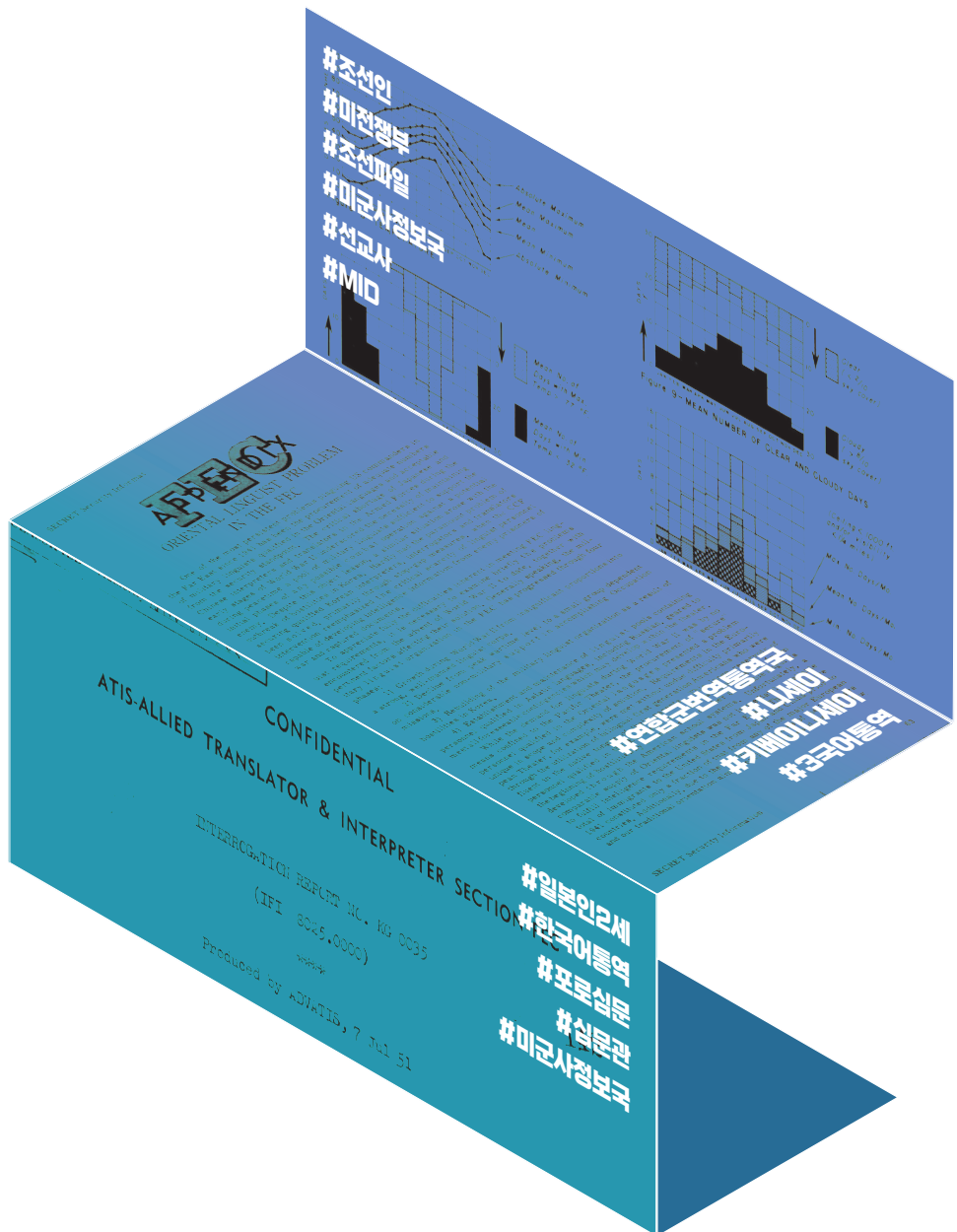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기록물을

살려내고 있다



목차

03

조선인은 누구인가?

미 전쟁부 군사정보국(MID)이 분석한 ‘1942년 조선’

17

‘니세이(二世)’와 한국전쟁

발행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김희섭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500

누리집 www.nl.go.kr

기획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

집필 이흥환

감수 이동원, 송병권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268-14

ISSN 3058-8197

디자인·인쇄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 본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의 무단 게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한국 지식정보자원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한국학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왔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약 4만 건, 330만 면을 디지털화 수집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www.nl.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NARA 기록물 수집 2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NARA 기록물을 살펴보다』를 시범 발간합니다. 자료집에는 도서관이 수집한 NARA 기록물을 소재로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주제의 한국 관련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역사 속 우리의 기록을 다채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이번 자료집을 통해 소장 기록물이 연구자를 비롯하여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널리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김 희 섭

조선인은 누구인가?

미 전쟁부 군사정보국(MID)이
분석한 '1942년 조선'

#조선인

#미전쟁부

#조선파일

#미군사정보국

#선교사

#MID

#언더우드

#아펜젤러

조선인은 누구인가?

미 전쟁부 군사정보국(MID)이 분석한 ‘1942년 조선’

 글 이흥환*

‘명석한 사람들이다. 뭐든지 금방 배운다. 하지만 성질이 급해 사소한 술책에도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위 인용문은 미 전쟁부(Department of War) 군사정보국이 분석한 조선인의 특징 중 하나로, 1942년 5월에 작성한 정보참모부(G-2) 군사정보국(MID,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의 ‘조선 파일’에서 발췌한 것이다. 문서의 제목은 ‘조선인의 기본 특성(Basic Qualities of the Korean People)’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에서 조선 사람의 기질(character)을 분석한 대목은 이렇게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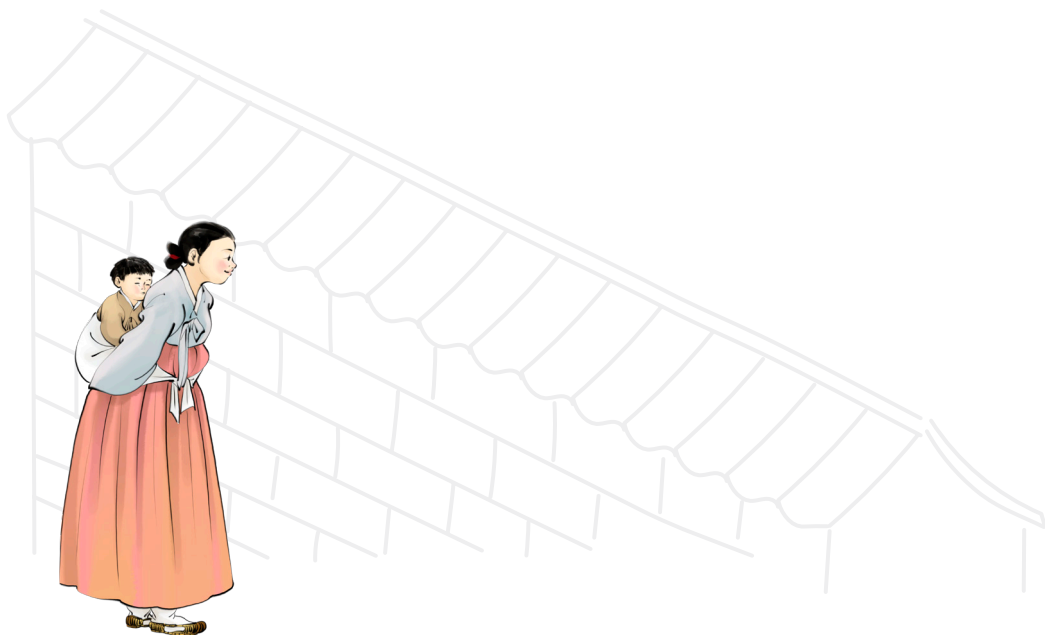
‘대부분의 조선인은 무엇이든 쉽게 배우며(learn easily), 용감하고 자신에 차 있으며, 성실하고 바름(loyalty and discipline). 동시에 조선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질이 급해(quick tempers),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다가 사소한 술책이나 음모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음. 이런 성향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수백 년 이어온 실정(失政)과 30여 년에 걸친 일본의 압제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음이 틀림없음.’

* 미국 워싱턴의 인터내셔널 센터 KISON(Korea Information Service on Net) 프로젝트 편집위원으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시거 아시아 연구센터 객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다가 뒤통수 얻어맞기 일쑤인 성향을 꼭 집어낸 부분은 꽤 설득력이 있다. 급한 성질에 내 것만 보려 드는데 멀쩡할 리가 없으니 말이다. 애초 그렇게 타고나기도 했겠지만, MID의 분석에서는 조선인을 지배해온 정치 문화 역시 한 원인으로 꼽았다. 조선인의 기질이 ‘오래된 실정(失政)과 일본의 압제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냉철한 눈으로 조선인을 들여다본 이 분석은 군사용으로 연구된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에 전쟁을 선포한 지 반년이 채 안 됐던 시기에 MID는 이미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다.

‘조선 파일’에는 지리, 기후, 도로, 철도, 광물, 향만 등 조선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물론 모두 군사 작전을 전제로 한 정보들이다. 조선의 날씨를 분석한 문서를 보면, 조선 파일의 작성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조선의 날씨는 1년 내내 군사 작전을 펼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나 6월, 7월, 8월은 군사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이 시기에 질병이 퍼지고 호우 때문에 병력 이동이 어렵기 때문임. 여름철에는 또 습도가 높아 숨 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림. 북부 내륙 지방의 강수량은 연 20인치밖에 안 되지만 남부 해안 지방은 무려 60인치나 되어 강수량의 지역 차도 심함. 미국인한테는 일본보다 조선의 날씨가 적응하기에 더 좋음.’ (194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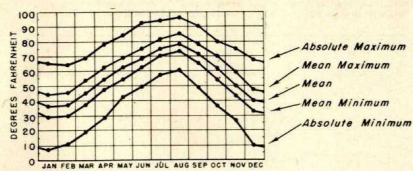


Figure 3-TEMP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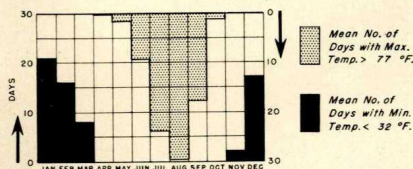


Figure 4-FREQUENCY OF TEMPERATURE LEV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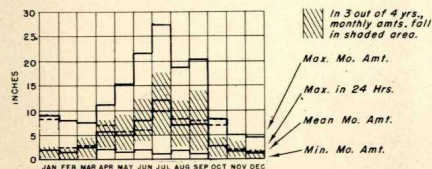


Figure 5-MONTHLY PRECIPITATION AMOU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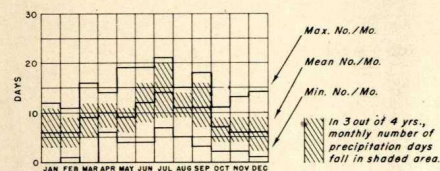


Figure 6-NUMBER OF DAYS WITH PRECIP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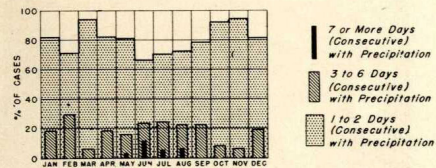


Figure 7-PRECIPITATION SPE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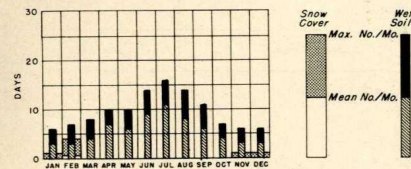


Figure 8-NUMBER OF DAYS WITH SNOW COVER AND WET S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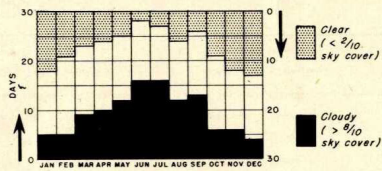


Figure 9-MEAN NUMBER OF CLEAR AND CLOUDY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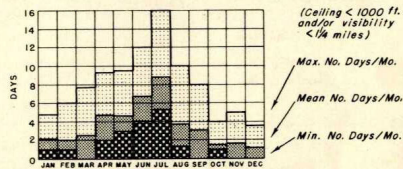


Figure 10-DAYS WITH LOW CEILINGS AND VISI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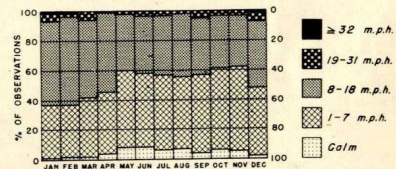


Figure 11-WIND FREQUENCY DIS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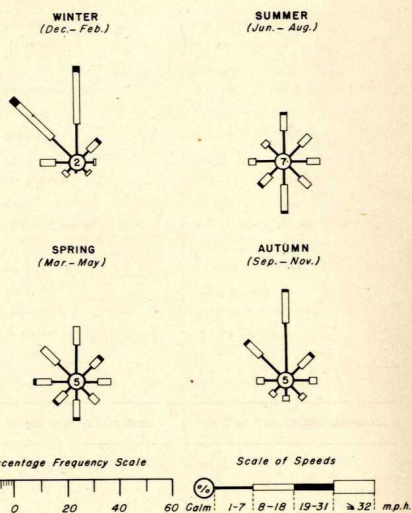


Figure 12-SURFACE WIND ROSES

조선의 기후 자료를 도표로 분석한 미 군사정보국 문서.

연간 기온, 강우량을 비롯, 사계절 풍향과 세기 등

1942년 조선의 다양한 기후 자료를 담고 있다.

(원소장처 출처: RG 165, Entry #77, Box #2259, Folder: 1300 Korea)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조선인의 내면을 분석한 것이다. 조선인을 들여다본 MID의 눈은 깊고 넓었다. 하루 이틀 들여다본 눈썰미가 아니다. 심지어 남과 북의 차이를 기술한 대목도 발견할 수 있다.

‘북쪽과 남쪽 지방 사람들은 인종적인 차이 탓에 기질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남쪽 사람들은 키가 작고 덜 단단한(less hardy) 편이며,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경향이 덜하고(less initiative), 다소 냉정하며(more phlegmatic), 북쪽 지방 사람에 비해 시키는 대로 하는 경향(inclined to do as he is told)이 있음. 반면 북쪽 사람들은 몸집이 좋고 야심만만하며(ambitious) 대담하고(daring), 독창적임(ingenious), 조선의 북쪽 지방은 전통적으로 반란과 봉기의 고장이었음.’

군사든 민사든 미 공문서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문장이 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는 것이다. 이는 관료들의 타고난 문장력 때문이 아니라 호된 작문 훈련의 결과다. 그러한 맥락에 더하여 뛰어난 표현력까지 갖춘 문서는 독자의 읽는 재미를 더한다. MID의 조선인 분석도 예외가 아니다. 조선인의 권위(authority) 존중 성향의 역사적 배경과 현상을 MID는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인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체제와 학문 성취도에 따라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관리직에 등용이 되는 고대 중국의 통치 형태 하에서 훈련을 받은 탓인지 보통 미국인들보다는 훨씬 더 권위를 존중(respect for authority)함.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 더 개인주의적(more individualistic)인 반면 조직이나 단체에서의 복종심은 일본인보다 덜한데(less amenable), 정당하게 성립된 권위에 맞닥뜨릴 경우에는 그 권위를 재빨리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함. 이런 사실은 조선 장로교나 감리교 또는 최근 들어 조선인들이 조직한 유사 단체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음.’

MID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이제 조선인의 정치·사회적 특성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조선인의 자치 능력과 독립 의식까지 분석한다.

‘1911년 중국에 쑨원이 등장한 이후 중국인들에게 ‘민족, 민권, 민생’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했다면, 지금의 조선도 영원한 독립 국가 수립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민족주의에 대한 조선인의 자각 의식은 1911년 당시의 중국인에 비해 훨씬 더 고양되어 있음.’

MID의 분석에 따르면, 1911년 무렵의 중국에 비해 조선의 민족 의식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든 요인은 아래 인용한 것처럼 ‘반일 정서’, ‘기독교 이념’, 그리고 ‘교육’이다.

‘(a) 반일 정서: 조선인의 반일 정서는 단순히 전통적인 증오심에서라기보다 이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혐오감으로 그 윤곽이 뚜렷해졌으며,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해 뭔가를 생각하도록 만들었음.

(b) 기독교 이념: 기독교 선교 단체 및 선교에 힘입은 조선 교회의 조직화한 활동이 다소 편협되게 특정 종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기독교적 개념이 조선인의 심성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삶의 사회적 평등이라는 생각에 직접 연결이 되었음. 지금은 일본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정책이 완화될 경우 조선의 기독교인 숫자는 현재까지 등록된 50만 명을 훨씬 더 넘어설 것으로 보임.

(c) 교육: 정부와 교회의 노력 덕분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해력(literacy)이 높아지면서 국제 정세, 특히 자유 쟁취라는 세계적 조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음.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2,300만 인구 가운데 교육 혜택을 받은 사람이 920만 명에 이르러 거의 40%에 가까움. 이들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자료를 살펴보면 MID는 각종 문헌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MID의 문서들은 특정 소식통이나 정보원(human sources) 또는 인적 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없이는 알아낼 수 없는, 현지 사정과 당시의 사회 상황을 기술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MID는 조선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도대체 어떻게 얻었을까. 조선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분석한 다음 글에서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조선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 이미 60년 전이긴 하지만, 보통 조선인들의 도덕성(moral stability)과 신뢰성(dependability)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정보를 얻기 힘들. 거의 대부분의 평가가 아래에 지적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두 가지 시각 가운데 한 가지만 취하고 있기 때문임.

(a) 사업가가 본 조선인: 사업가(business man)들은 주로 일본 공무원이나 사업가들과 접하기 마련임. 따라서 비참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과는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음. 사업가들은 조선인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높이 쳐 주고 그들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선교사들을 뒷전에서 못마땅해 함.

(b) 선교사들이 본 조선인: 대개의 경우 선교사들은 백성들의 정치적 동향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살아가는 주변 환경 쪽에 관심을 갖고 있음. 조선인의 개척 교회나 유사한 조직 활동을 지켜보면서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이 자제력(self-discipline)이 있고 안정감(stability)을 갖춘 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동양에서 활동하는 일반적인 미국인 사업가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각 또한 곱지만은 않음. 고국인 미국에서의 자제력 있는 삶을 도외시한 채 외국에 나와 무책임하다시피 한 삶(somewhat irresponsible exile)을 살고 있다고 보는 것임.

이 두 가지 시각 중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의견 모두 넓은 시각에서 조선인을 파악한 것임.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고도 도덕적인 확신에서 그랬다고 버틴다면 그 조선인은 미국식 기준으로 언뜻 봤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음. 조선에서는 빚을 졌는데도 갚을 뜻이 전혀 없고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어린이에 같은 짓을 저지르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주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 더 흥미로운 점은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누군가 좀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손에 결국은 구출이 된다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 구조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은 친척이기 마련이고 좀더 가까운 피붙이일 가능성이 높음. 조선 사회에는 실제로 불행한 처지의 친척들을 끝까지 먹여 살리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는, 소박한 공산주의(homespun communism)가 존재함. 그러나 조선에는 부정직한 방법이나 강압적으로 득을 보려는 것과 그저 무일푼인 것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 억지를 써서 뭔가를 손에 쥐어보겠다는 것은 관습을 빌미로 거저먹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임.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일부다처제와 축첩제가 그것임. 나라가 개방된 후 과거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조선에는 여전히 일부다처와 축첩의 관습이 남아 있음. 미국 사회의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서는 충격적인 현상임. 또한 조선인들은 사회에 해를 끼칠 만큼 과하게 재산을 축적하거나 세련되지 못하게 간통을 저질러 크게 체면을 잃는 사람은 특유의 방식으로 따돌리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선인들은 일반적인 미국인 사업가들이 관찰한 것처럼 그렇게 수준이 낮지도 않으며, 이상적인 시각을 가진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하지도 않음.’

MID가 조선 관련 정보를 주로 획득한 두 곳의 출처(sources)가 사업가와 선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그룹의 조선인 평가는 사뭇 대조적인데 MID는 상반된 두 견해를 듣고 나름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실제로 MID의 ‘조선 파일’에는 정보 획득 수단 중 하나가 선교사임을 직접 밝히는 문서가 적지 않다. 한국인이면 모를 수 없는 리처드 아펜젤러나 호레이스 언더우드라는 이름이 미 전쟁부의 정보참모부(G-2) 문서 여러 곳에 등장한다.

‘조선, 경성 전경’이라는 제목의 G-2 문서(1942년 8월 18일)에는 1929년에 촬영된 경성 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리처드 아펜젤러(Richard D. Appenzeller)라고 밝히면서 그의 신상 정보를 간략하게 적어놓았다.

‘리처드 D. 아펜젤러: 현재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대학 학생임. 그의 부모가 선교사로 일하며 거주했던 한국에서 태어났음. 출생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으며 1941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음. 현재는 UC 버클리 대학의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살고 있음. 믿을 만함(reliable).’

문서에 적힌 리처드 D. 아펜젤러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 기관인 배재학당 설립자 헨리 G. 아펜젤러(Henry Gerhardt Appenzeller)의 손자이다.

또 MID의 ‘조선 파일’은 1943년 6월 17일 뉴욕에 있는 미 장로교 해외선교위원회의 호레이스 H.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가 버지니아주의 로버트 키니(Robert A. Kinney) 앞으로 보낸 개인 편지도 보관하고 있다. 발신자 언더우드는 1885년 조선에 입국한 미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G.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아들이고, 로버트 키니는 미 전쟁부 정보참모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아시아 전문가로 주로 일본과 한국 관련 정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장로교 선교사가 ‘G-2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첫머리는 이렇다.

‘미 육군 제복을 입은 한 한국 젊은이가 어제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 육군이 어떤 한국 관련 계획(plans)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인지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한, 실제 한국 침공에 앞서 이 젊은이는 한국에서 잘 활용할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미 선교사들의 이름은 미 해군부(Department of the Navy)의 1944년 정보국 문서에도 등장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선교사인 F. E. 해밀턴(F. E. Hamilton)은 1919년부터 1940년까지 21년 동안 평양에 거주했으며, 평안남도 소래 해변에 대한 지역 정보원(informant)이었다. 소래 해변은 평남 남포 아래에 있는 작은 포구로 미 해군이 유사시 상륙 지점으로 꼽았던 곳이다.

N.M.I. 95-1943

1998

ISSUED BY THE INTELLIGENCE DIVISION
OFFICE OF CHIEF OF NAVAL OPERATIONS
NAVY DEPARTMENT

CONFIDENTIAL

INTELLIGENCE REPORT

Serial 29-44

Monograph Index Guide No. 604

(Start new series each year, 1, 2, 3-5)

(To correspond with SUBJECT given below. See O. N. I. Index Guide. Make separate report for each main title.)

From DIO-AND-PN

at Philadelphia, Pa. Date 29 February 1944

Reference (a) DIO-AND NMI-96, Serial 12-44, dated 29 January 1944.

(Directive, correspondence, previous related report, etc., if applicable)

Source HAMILTON, F. E., Oreland, Pa.

Evaluation F-2

(An official, personal observation, publication, press, conversation with—
Identify when practicable, etc.)A-1 to E-2 etc.
ANVEN 1-10; SER. 412115-11-10-12

Subject KOREA - Daito Bay - Landing Areas.

(Notion reported on) (Main title as per index guide) (Subtitles) (Make separate report for each title)

REMARKS—(Here enter careful summary of report, containing substance succinctly stated; include important facts, names, places, dates, etc.)

Possible landing beaches at Sorai Beach and Daisei To.
Vicinity of Grove's Bluff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landings.

1. Informant HAMILTON is a former missionary who resided in Haijo 1919
1925, 1926-1933, 1934-1940. His information is based upon personal observation

2. The beach from Fort Point at approximately $38^{\circ}4'N$, $125^{\circ}00'E$ to the
entrance of Kachimegyo Ko at approximately $38^{\circ}7'N$, $124^{\circ}53'E$ consists of fine
sand with a high silica content, varying in width from 30-50 feet wide at high
tide to 1/4 mile or more at low tide. Dunes about eight feet high may be
encountered along the shoreward edge of the beach, but there are no heights in
the vicinity where defensive artillery might dominate a beachhead except the
sixty-foot hill on Fort Point. The beach on this coast is generally known as
Sorai Beach. There are sand bars offshore and outstanding among these is the
bar which extends from the village of Mokuton to Sonjon To. The bar is under
water at high tide, but at low tide it is possible to walk over dry sand from
Mokuton to Sonjon To, and from there to Starfish Island, which has been identi-
fied as a small island off the southwest corner of Sonjon To. When the space
between Starfish Island and Sonjon To is under water, tidal conditions create
a swift current between them.

3. A nearby source of excellent water is a large spring at Sorai
Village, which is the community indicated on H.O. Chart #3243, Consec. #2687
at the east of an unnamed stream running south to Fort Point. The spring is
the source of this stream.

4. On the island of Daisei To, also known as "Big Blue", at approxi-
mately $37^{\circ}50'N$, $124^{\circ}42'E$, there is a level beach along the eastern coast
composed entirely of round smooth stones 3-4 inches in diameter and no sand.
The beach is approximately 1/2-3/4 mile long and 20-30 feet wide, unbroken by
any promontories. The southern end of the island rises to heights of over
1,000 feet but the hills are rather sheer and this would present difficulties
to a force seeking to move artillery there. In the center of the northern
half of the island, the terrain gradually rises from the stoney beach to a

Distribution By Originator ONI: F-2; FILE.

Reserve space below for use in O. N. I.

FE
Op. 28
MID (7)
Comhibpac (2)
FM file (3)
A-3-e via 16F

Use this form for page 1, (original and copy). Use the 8 by 13 inches plain fold-over on supplied for additional pages. Forward to ONI on original and a "White Matter" copy.
Officers preparing and those forwarding reports shall the last page of original and include the copy of report only. Submit copies of all pages, including, etc., when practical. If practicable,
prepare sketches on "White Matter" or in a form suitable for sketch and this representation.

전직 선교사 F.E. 해밀턴의 이름이 실린 미 해군부 정보국의 정보 보고서(1944년 2월).

평남 소재 해변에 대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3급 비밀 문서다.

(원소장처 출처: RG 165, Entry #77, Box #2259, Folder: 1170 Korea)

사업가 역시 MID에게 조선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사업가인 토마스 쉴즈(Thomas Schields)도 미 해군부 정보국 문서에 이름이 올라있다. 토마스는 '마케팅과 유통 관련 해외 무역 전문가'였고 '캘리포니아 텍사스사의 자회사인 바레인 정유사 직원으로 1939년 조선에 파견돼 1940년까지 거주'했다. 토마스가 정보원이라고 밝힌 정보국의 1944년 3월 31일자 정보 보고서는 일본의 폭발물과 연료 집하장이 있는 제물포 지역에 대한 것이다.

1190 Korea

N.M. 1.96--1943

ISSUED BY THE INTELLIGENCE DIVISION
OFFICE OF CHIEF OF NAVAL OPERATIONS
NAVY DEPARTMENT

CONFIDENTIAL **INTELLIGENCE REPORT**

Serial 38-44 Monograph Index Guide No. 602
(Start new series each year, i. e. 1-3, 2-3) (To correspond with SUBJECT given below, See O. N. 1, under Guide. Make separate report for each main title.)

From DIO-LND-FN of Philadelphia, Pa. Date 31 March 1944
(Ship, fleet, unit, district, office, station, or person)

Reference _____
(Directive, correspondence, previous related report, etc., if applicable)

Source SCHIELDS, Thomas F., Philadelphia, Pa. Evaluation F-2
(As official, personal observation, publication, press, conversation with—
Identify when practicable, etc.) A-1 to E-9 etc.
AD/EN 3-18; SER. 312416-11-18-2

Subject KOREA - JINSEN (Chemulpo) - Coastal Cities and Towns.
(Nation reported on) (Main title as per index guide) (Subtitles) (Make separate report for each title)

BRIEF—(Here enter careful summary of report, containing substance succinctly stated; include important facts, names, places, dates, etc.)

Japanese formerly concentrated storage of explosives and fuel immediately north of cemetery in northwest section of city. New area has been designated for this purpose to the east thereof, in a reclaimed section on the city's northern edge.

Encl. 1.—HW. Tracing from H.O. Chart #2449 (Photostatic negative and print).

1. Informant is a specialist in foreign trade, marketing and traffic, and he was employed as such in the Far East from 1934 to March 1943 by the Bahrain Petroleum Company, a subsidiary of the California Texas Company. He was located in Korea in 1939 and 1940, and he last visited Jinsen in July 1940. His information is based upon personal observation.
2. As of 1940, oil storage installations in Jinsen were concentrated in the area immediately north of the cemetery shown on H.O. Chart #2449 (Consec. #2689) in the northwestern section of the city. In the southern part of this area, the Cal-Tex installation comprised three wooden buildings with tile roofs and cement flooring of flimsy construction, which were used only for storage of package goods. Adjacent to Cal-Tex on the north, there were the much larger facilities of the Chosen Petroleum Company and the Mitsui Oil Company, both Japanese concerns. These plants were closely guarded, constituting a prohibited area. Explosive dumps were situated immediately north of the oil storage facilities.
3. Early in 1940 the Japanese decreed that all such dangerous and inflammable materials would be removed to a new location because of the hazard to factories and workers' homes in the industrial area east of the region described above. Their new location is a reclaimed area on the northern edge of Jinsen, adjacent to the basin shown on the extreme east side of the chart.

일본 연료 집하장이 있는 제물포 지역 정보를 담고 있는 미 해군부 정보국의 정보 보고서(1944년 3월).

해외 무역 전문가 토마스 쉴즈한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다.

(원소장처 출처: RG 165, Entry #77, Box #2259, Folder: 1190 Korea)

심지어 미 군사정보국의 조선인 분석은 조선인 개개인에 대한 지적 능력과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손을 뻗친다. 사실 일본을 분석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도 전쟁 상대국인 일본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그 출발이었다. MID가 연구한 ‘조선인의 기본 특성’은 당시 조선인 분석의 기본 틀로서도 손색이 없다. 그 중에서도 조선인의 ‘지능(intelligence)’을 분석한 항목은 불사조 같은 조선인의 ‘타고난 예리함(native keenness)’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선인의 지능

조선 왕조 후반기의 통치력 부재와 1910년 이래 일제 지배 하에서 자기 계발 기회의 부재라는 악재가 있긴 했으나 조선인의 타고난 예리함(the native keenness)까지 파괴하지는 못했음. 조선의 전문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꽤 성공적인 업무 성취도와 미국에 유학중인 조선인들의 상당한 학업 성취도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지적인 측면에서 조선인들을 한 수 앞서서 이기려고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 봐도 조선인들의 예리함은 증명이 되고 있음. 조선인들은 자제력이 강하고(stoical)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도 무덤덤해하는 편인데, 이런 태도는 혁신에 대한 이해가 늦어서라기보다는 평정심(composure)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자의식의 발로로 봐야 하며, 이미 상황을 확실히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걸 보더라도 그들은 지능이 예리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함.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지식에 대한 조선인들의 열망과 그 지식을 바로 흡수해 버리는 능력은 그 어떤 단체나 기구에 속해 있더라도 확실하게 드러날 것임.’

이 문서에 따르면, MID는 조선인들에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확신한다. 아마도 그것은 서양인들에게서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을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조선인의 ‘친절과 환대’는 또 어떤가. 문서에서는 ‘친절과 환대’에 대한 조선인의 성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행간에서 불편한 ‘가시’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읽는 이의 몫이다.

‘의전 전문가들은 조선인한테 배워야 할 점이 많음. 썩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 조선인들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absolutely non-committal), 그 낮은 사람을 앞에 두고도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법 없이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 그러다가도 일단 외부인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데, 그야말로 극진하게 대접함. 서양인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대접을 받아봤을 것임.

조선인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 합당한 방법과 요령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즉 조선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들이 잘 쓰는 관용구 한두 마디만 곁들일 수 있다면, 게다가 두세 명 정도의 핵심적인 지도자한테 접근할 수만 있다면,

어떤 마을에서든 단시간에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친절과 환대라는 사회 규약은 조선 사회의 불문을 같은 것임. 천성이 그렇고 타고난 기질이 그러함.’

Author: <u>ADD 748020</u> by <u>RT</u> NAKA Date: <u>7-18-08</u>	ADD May 15, 1942
KOREA	2100 -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BASIC QUALITIES OF THE KOREAN PEOPLE	
<p><u>Influence of tradition and custom.</u> In rural Korea, where nine tenths of the population lives, old Korean customs are still strong, though with a slight overlay of Japanese culture. In the cities, especially the capital city of Keijo, there are many Western influences, largely introduced by the Japanese. Much of the ideology of the present independence movement centers around the glories of the early period of Korean history, during which Japan itself absorbed a great deal of Korea-conditioned Chinese culture. Independence groups are also working actively to promote and develop the Korean language, which is tenaciously retained by the natives despite Japanese efforts to supplant it.</p> <p><u>Temperament.</u> There is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s who live north of the capital and those who live south, due in large part to the differences in racial origins discussed under "Ethnic Groups" (paragraph 2020). The southern Korean is smaller in stature and less hardy, has less initiative, is more phlegmatic and is more inclined to do as he is told than his north Korean neighbor. The latter possesses a good physique, is ambitious, daring, ingenious and capable. Northern Korea is traditionally the area of rebellion and insurrection. Koreans in general, however, learn easily, are courageous and capable of self-reliance, loyalty and discipline. At the same time, they are generally inclined to give way to quick tempers and to indulge in potty intrigues and plots to gain their personal ends. These tendencies may be inherent but they have unquestionably been aggravated by centuries of native mis-rule and three decades of Japanese suppression.</p> <p><u>Respect for authority.</u> The Korean, trained in the patriarchal organization of society and in the old Chinese system of government through administrators who attained their rank by scholarly achievement, probably has a more basic respect for authority than the ordinary American. He is more individualistic and less amenable to regimentation than the Japanese, but when he meets what he considers properly constituted authority, he is quick to recognize and submit to it. This fact is demonstrated by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and Methodist churches and other similar organizations by Koreans in recent years.</p> <p>This possession of a fundamental respect for law and order on the part of the Korean is not disproved by the frequent instances of rebellion against Japanese rule. Koreans not only have a deep-seated hatred for their Japanese rulers and the culture they represent; they are also, as a whole, still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y were an independent nation a scant generation ago and regard the Japanese as interlopers. This feeling remains strong in spite of, or perhaps partly because of, the severe repressive measures which the Japanese have employed in recent years and which may, indeed, have made some impression on the children in the lower grades of the educational system.</p> <p>With their thinking based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that the Japanese regime is a usurping one, it is not unnatural that the Koreans should regard any purely political "crime" against the existing government as being more than justifiable from a moral standpoint.</p> <p><u>Capacity for self-government.</u> If the Chinese people were in need of fundamental training in "nationalism, democracy and livelihood" in the years of Sun Yat Sen's work after 1911, the Korean people today are faced with a similar need for training in order to develop sufficiently their capacity for permanently maintaining their independence.</p> <p>The consciousness of nationalism itself is of course much more highly developed among the Koreans today than it was among the Chinese in 1911.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fact. First, the country is comparatively small, and the people of Fusan, for example, are more</p>	
Source: Study in Far Eastern Branch, M.I.S. 2100/.1.	

미 전쟁부 군사정보국(MID,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의 '조선 파일'에 들어 있는 '조선인의 기본 특성'이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1942년 5월 15일).
 (원소장처 출처: RG 165, Entry #77, Box #2259, Folder: 2030 Korea, Language)

MID의 조선인 분석은 종착점에 가까워졌다. 그들의 보고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조선인의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조선인을 살펴보자.

‘조선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든 이상한 모순점들이 발견되는데, 육체적인 강인함과 힘든 일을 성취해 내는 능력이야말로 이런 모순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영역임. 몸이 잘 단련된 미국인이라면 한 명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에 조선 사람은 서너 명이 둘러붙어 일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힘든 일이 생기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음. 반면에, 한여름의 찜통 같은 더위나 한겨울의 혹한에도 평범한 농부나 일꾼들이 온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는 곳이 조선임. 웬만한 미국인 노동자라면 손수레나 트럭 없이는 절대 들어 나를 엄두를 내지 못할 짐들을 조선의 지게꾼이나 짐꾼들은 거뜬히 등에 저 나름. 조선 여자들도 마찬가지임. 아무리 고된 일도 척척 해냄. 이런 걸 보면 조선의 남자나 조선의 여자는 똑같이 타고난 일꾼인 것 같음.’

일반 조선인들이 정신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에서 극단적으로 취약함과 강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듯이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게 정신적 · 신체적 용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남. 하찮은 난관에 직면했을 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조선인들은 쉽게 무력해지고 나약한 모습을 보임.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목숨을 건 문제에 직면했거나, 애국심이나 신앙 때문에 가혹한 육체적 시련을 당할 때에는 투사 같은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조선인임. 이런 용기는 평시의 미국이나 유럽처럼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건을 갖춘 서양 사회에서는 좀체 발견되지 않는 것임.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필설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동지의 이름을 대지 않거나 계획을 누설하지 않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야말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 정신적 용기를 입증하는 훌륭한 사례들임.’

그렇다면 미 군사 전문가들은 조선인의 ‘무장 병력으로서의 적합성’을 어떻게 봤을까. 이 주제에 대한 답이야말로 이 분석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한다.

‘군 병력으로서의 적합성

소련 극동군에 소속되어 20여 년 동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조선인 장교들과 조선인들로만 구성된 극동군 소속 2개 사단의 병력을 보면, 조선인들이 군 복무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더 좋은 사례가 있음. 1919년 이후 몇 해에 걸쳐,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조선 독립군들은 열악한 무장 상태에서도 조선-만주 국경 지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면서 조선 북부 지방의 일본군들을 곤혹스럽게 만

들었음. 이청천이 지휘하는 조선 광복군과 김약산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중국에서의 활동은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부대들은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는 중이며 힘을 합해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음.

조선인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심리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장교단들이 지휘를 맡게 된다면, 조선인들은 유용한 병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임.’

문서 출처

파일	2030 - Korea, Language
문서군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시리즈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Regional File" 1922-44; (Office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G-2 Regional File 1933-1944), Korea
콘텐츠ID	CNTS-00053801221
파일	1300 - Korea
문서군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시리즈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Regional File" 1922-44; (Office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G-2 Regional File 1933-1944), Korea
콘텐츠ID	CNTS-00053801219
파일	1170 - Korea
문서군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시리즈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Regional File" 1922-44; (Office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G-2 Regional File 1933-1944), Korea
콘텐츠ID	CNTS-00053801213
파일	1190 - Korea
문서군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시리즈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Regional File" 1922-44; (Office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G-2 Regional File 1933-1944), Korea
콘텐츠ID	CNTS-00053801187
파일	5990 - Korea, Who's who
문서군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시리즈	Military Intelligence Division; "Regional File" 1922-44; (Office of the Director of Intelligence, G-2 Regional File 1933-1944), Korea
콘텐츠ID	CNTS-00053801233

‘니세이(二世)’와 한국전쟁

#연합군번역통역국(ATIS)

#니세이(二世)

#키베이니세이(歸米二世)

#일본인2세

#한국어통역

#포로심문

#심문관

#3국어통역

#미군사정보국

#MISLS

#ADVATIS

‘니세이(二世)’와 한국전쟁

 글 이흥환*

포로 심문서(Interrogation Report) 0035

작성: 연합군 번역통역국 파견대 (ADVATIS)

포로 인적 사항

이름: 김○호(金○鎬)

계급: 전사(이등병)

나이: 35세

업무: 취사병

교육: 소학교 6년

주소: 함경북도 ○○군 ○○리

한국전쟁 때 미군이 작성한 포로 심문서는 이렇게 시작된다. 도쿄의 극동군사령부에 설치되어 있던 연합군 번역통역국(ATIS, 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에서 작성한 포로 심문서 0035의 맨 앞 부분이다. 조선 인민군 취사병이었다가 포로가 된 전사 김O호의 심문서다. 심문서에 따르면 35세의 김O호는 입대 전에 중국 길림성 화룡(和龍)에서 두부 장사를 했었다.

* 미국 워싱턴의 인터내셔널 센터 KISON(Korea Information Service on Net) 프로젝트 편집위원으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시거 아시아 연구센터 객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포로들 평균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것에 비하면 나이가 지긋한 편이다. 포로 심문서의 주소 다음 칸에는 김O호를 심문했던 심문관(Interrogator)의 이름이 적혀 있다.

‘심문관: 와타나베 상병(ATIS 소속)’

와타나베(Watanabe)는 물을 것도 없이 일본계 미국인이다. 미 국적의 군인이고 계급은 상병이며 연합군 번역통역국 소속이다. 포로 심문서 0035호를 꺼내든 이유가 바로 이 사람, 와타나베 때문이다. 다른 심문서 하나를 더 들여다본다.

포로 심문서 0038

이름: 이O창(李O彰)

계급: 전사(이등병)

나이: 21세

업무: 소총수

교육: 무학

주소: 강원도 OO군 OO면 OO리

이O창은 전쟁 전인 1948년 3월에 계약직 노무자로 소련 캄차카의 미카얀이라는 곳에 가 연어와 송어를 염장하는 생선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다 1949년 11월 귀국했고 이듬해 전쟁이 나면서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포로가 된 강원도 출신의 청년이다. 이O창을 심문한 심문관의 이름 역시 일본계이다. 후타가키(Futagaki) 상병으로 되어 있다.

극동군사령부 문서철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포로 심문서들에도 심문관 항목에는 대부분 일본인 이름이 적혀 있다. 포로로 잡힌 북한 인민군을 심문한 사람들이 일본계 미군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 일본계 미국인들을 미 군사(軍史)는 ‘니세이(Nisei)’라고 부른다. 일본인 2세라는 뜻이다. 한국전쟁에 니세이가 등장하는 사연은 무엇일까.

CONFIDENTIAL

ATIS-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FEC

INTERROGATION REPORT NO. KG 0035

142

(IFI 8025.0000)

Produced by ADVATIS, 7 Jul 51

PERSONAL DETAILS:

PW NAME: KIM, Ho (金 鎬) (조 互)
 PW NUMBER: 73906
 RANK: Pvt
 AGE: 35
 DUTY: Cook
 UNIT: NKA, 7th Regt, 4th Bn
 EDUCATION: 6 yrs Primary School
 CIVILIAN OCCUPATION: Crane operator at iron mine.
 PLACE OF CAPTURE: HAMHUNG (咸 興)
 DATE OF CAPTURE: 25 Oct 50
 PLACE OF BIRTH: KOREA, HAMGYONG-PUKTO, HUNAN-GUN, HUNAN-MYON, HUNAN-NI
 (咸 鏡 北 道 郡 面 里 番 地)
 HOME ADDRESS: KOREA, HAMGYONG-PUKTO, HUNAN-GUN, HUNAN-MYON, HUNAN-NI
 (咸 鏡 北 道 郡 面 里)
 INTERROGATOR: Cpl WATANABE (ATIS)

ASSESSMENT:

Intelligence, cooperation - fair. Judgement of distances and measurements - poor. Memory - fair. Reliability - fair.

CHRONOLOGY:

20 Jan 16: Born in KOREA.
 May 40: Moved to HCLUNG (和 龍), CHILIN Prov, MANCHURIA.
 Sold soy bean cakes.
 Feb 42: Departed HCLUNG for YENCHI (延 吉) CHILIN Prov.
 Worked at an alcohol plant in YENCHI for ten months.
 Jan 43: Returned to HCLUNG. Sold soy bean cakes.
 10 Jul 47: Departed HCLUNG for MUSAN (茂 山), KOREA.

* * * * *

HCLUNG (和 龍), CHILIN Prov, MANCHURIA

2. SOCIOLOGICAL
 Pvt

HCLUNG, MANCHURIA
 D/C Jan 43 - Jul 47

POLICE STATION (IFI 4408.0000)

Location: (Sketch, Item 9)

Aprx 2 km SE of the RR station.

Observation:

Entered once in 1944. Passed by 2 - 3 times a week during Jan 43 - Jul 47.

CONFIDENTIAL

북한군 포로 김O호 심문서.

김O호를 심문한 대구의 연합군 번역통역국 파견대(ADVATIS) 소속 심문관은
 일본계 미국인인 와타나베 상병이다.
 (원소장처 출처: RG 554, Entry #17A (A1), Box #55, Folder: Int. Rpt #KG 0031-0057)

CONFIDENTIAL

ATIS-ALLIED TRANSLATOR & INTERPRETER SECTION-FEC

INTERROGATION REPORT NO. KG 0038

142

(IFI 8025.0000)

Produced by ADVATIS, 7 Jul 51

PERSONAL DETAILS:

PW NAME: LEE, Chang (李 章) (이 창)
 FW NUMBER: 63 NK 121725
 RANK: Pvt
 AGE: 21
 DUTY: Rifleman
 UNIT: NK Guard Unit (Div, Regt, Unknown)
 EDUCATION: None
 CIVILIAN OCCUPATION: Farmer
 PLACE OF CAPTURE: PYONGYANG
 DATE OF CAPTURE: 19 Oct 50
 PLACE OF BIRTH: KOREA, KANGWŎNDO, GUN, MYŎN, RI # (江原道 郡 面 里)
 HOME ADDRESS: Same as above
 INTERROGATOR: Cpl FURUKAMI (ATIS)

ASSESSMENT:

Cooperation, good. Intelligence, judgement of distances and measurements, and memory, fair. Reliability, fair.

CHRONOLOGY: (IFI 5205.0000, 5407.000)

1930: Born in KOREA. Engaged in farming at home.
 Mar 48: Left for "MIKAYAN" (Phonetic) (40 km S of "KIROVSKI") KANGCHATEKA as a contract laborer. Employed at a fish cannery.
 Nov 49: Returned to KOREA.

* * * * *

"MIKAYAN", KANGCHATEKA

1. TOPOGRAPHY (IFI 6203.0000)
Pvt

"MIKAYAN", KANGCHATEKA
D/O Mar 48 - Nov 49

RIVER

Name: Unknown Location: East of "MIKAYAN" Village
 Width: 30 m Depth: 3 m Tidal Fluctuation: 3 m
 Direction of Flow: N - S
 Condition of Bottom: Sandy
 Height and Slope of Banks: 5 m slight slope

CONFIDENTIAL

북한군 포로 이O창 심문서.

이O창을 심문한 대구의 연합군 번역통역국 파견대(ADVATIS) 소속 심문관 역시 일본계 미국인인 후타가키 상병이다.
 (원소장처 출처: RG 554, Entry #17A (A1), Box #55, Folder: Int. Rpt #KG 0031-0057)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의 1952년 3월 지휘 보고(Command Reports) 파일 안에 들어 있는 7장짜리 보조 문서(Supporting Documents)는 니세이가 한국전쟁에 극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차분하게 들려준다. ‘극동군사령부 내 아시아어 전문 요원 총원 문제(Oriental Linguist Problem in the FEC)’라는 제목의 문서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한국어 통역 또는 번역 요원의 총원 문제는 극동군사령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유창하게 구사하는 전문 인력 확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한 화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전문적인 통·번역 요원 없이는 적군 포로 심문, 노획 문서 번역, 적군의 통신 감청 등 핵심 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의 고민은 깊어졌다. 미군은 이미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본 경험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아시아 언어 전문 요원 부족 문제는 해당 지역 미군 사령관들에게 골칫거리였다. G-2의 지휘 보고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1941년 이래 극동 지역 미군 사령관들을 괴롭힌 최대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 언어에 능통한 군(軍) 언어 요원(military linguist)을 안보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었음.’

군 언어 요원(military linguist)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평시에 충분한 숫자의 언어 전문가 그룹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배웠다. 하지만 미군은 한국전쟁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다시 한 번 2차 세계대전 초기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어 통·번역 전문가가 턱도 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1950년 6월 이전, 미군은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들을 언어 전문 요원으로 활용했었음. 군사적으로 특별히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임무에 투입할 때는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미국인들과 반드시 함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음.’

그래서 1950년 7월, 미 지상군이 한국에 투입되면서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는 언어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네 가지 조치를 취한다.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워싱턴의 육군부에 협조 요청 전문(電文)을 띄운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전문가 30명을 확보하고, 러시아어 및 중국어(만다린) 전문가 숫자를 파악해 즉시 극동군사령부로 보내줄 것을 요망함.’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적임자를 찾아보기로 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가운데 적정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해 언어 요원으로 채용하자는 주일(駐日) 한국 대표부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세 번째 조치는 한국에 투입된 미 8군에 대한 지시였다.

‘한국 피난민 가운데 영어-한국어 통역 및 번역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것.’

마지막으로 극동군사령부는 워싱턴의 육군부에 또 다른 요청 전문을 보낸다.

‘미군 내 모든 사단의 정보참모부 요원들 가운데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를 전공한 자들을 극동군사령부로 보내줄 것을 요청함.’



AFEC

ORIENTAL LINGUIST PROBLEM IN THE FEC

One of the most persistent problems plaguing US commanders in the Far East since 1941 has been the procurement of adequate numbers of military linguists qualified in the Oriental languages and acceptable from the security standpoint. The critical shortage of Japanese and Chinese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in the Armed Forc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World War II underscored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during peacetime a pool of military linguists sufficient to support the initial phases of any possible combat operation against a potential enemy. Despite this object lesson, a similar situation arose with the outbreak of hostilities in Korea. Hardly had the paramount problem of securing qualified Korean interpreters, interrogators and translators been solved, primarily through stop-gap measures, when the CCF intervention reemphasized the critical scarcity of linguist personnel capable of developing intelligence information from enemy prisoners of war and captured documents.

To appreciate fully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meeting FEC linguist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briefly the problems encountered from the advent of World War II to date, together with pertinent factors affecting their solution. Generally speaking, the military linguist organization in the FEC has progressed through four phases:

- 1) Growth during World War II from insignificant proportions into a strong, well-manned linguist corps.
- 2) Decline from peak wartime level to a small group dependent on considerable non-military support in accomplishing Occupation missions.
- 3) Rebuilding of the military linguist organization as a result of hostilities in Korea.
- 4)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linguist pools containing personnel qualified in Asiatic languages, including Russian, geared to meet all foreseeable contingencies which may develop within the theater.

While the demand for linguists during World War II was by no means confined to the Pacific Theater, the procurement of "secure" personnel qualified in the Oriental languages presented a problem unique in scope and complexity of solution. Requirements in the European Theater, for example, were met without undue difficulty primarily through the utilization of bilingual first generation Americans who were fluent in the native tongue of their parents. This large reservoir of personnel qualified in the European languages were augmented from the beginning of hostilities by a considerable number of capable linguists developed through the American school systems. Unfortunately, a comparable supply of Oriental linguists was not immediately available to fulfill intelligence requirements in the Far East. The cumulative total of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from Japan and China prior to 1941 constituted only a fraction of that from any of the major European countries. Additionally, due to the intrinsic difficulties of the languages and our traditional orientation almost exclusively toward the West, few



한국어 전문 통번역요원 충원 배경을 밝히고 있는 미 극동군사령부 2급 비밀 문서.

(원소장처 출처: RG 407, Entry #(NM3) 429, Box #640, Folder: Supporting Documents - G2 Section, GHQ, Far East
Command (Tech Intel Bul, CI Review, Intel Digest), Mar 1952)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성인 상당수가 일본어를 쓰고 말할 줄 알았다. 미군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미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던 니세이들을 일본말을 할 줄 아는 한국인과 함께 짝을 맺어주면 임시방편으로나마 북한군 포로 심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미봉책치고는 나쁘지 않은 대안이었다. ① 미군인 일본계 니세이 심문관이 일본어로 포로에게 질문을 하면 한국인이 한국어로 통역을 한다. ② 포로가 한국말로 대답을 하면 한국인이 이를 일본어로 니세이 심문관에게 통역해준다. ③ 마지막으로 심문관은 영어로 심문서를 작성하는 식이었다. 3개 국어를 동원한 이 간접적인 심문 방식은 꽤 먹혀 들어갔다.

‘일본어를 매개 언어로 쓰는 이 심문 방식은 아무래도 서투를 수밖에 없었고, 소통의 오류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단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야전에서의 임시방편 치고는 꽤 효과를 보았음.’

북한군에게서 노획한 문서 역시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영어로 번역되었다. 미군은 또 전쟁 중에 고급 군사 정보 취득을 위해 대구에 연합군 번역통역국 파견대(ADVATIS, Advanced ATIS)를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는데 ADVATIS의 핵심 요원들 역시 니세이들이었다.

3개 국어가 동원된 적군 포로 심문은 꽤 성과가 있긴 했으나 미묘한 두 가지 문제점이 곧 포착되었다. 북한군 포로들이 일본어로 진행되는 심문을 못마땅하게 여겨 저항하거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탓에 꼭 필요한 군사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은 한국어와 일본어 두 가지 말에 모두 유창한 한국군 요원을 선발해 니세이 심문관 대신 직접 한국말로 포로를 심문하는 방식을 택했다. 포로의 대답은 한국군 요원이 일본어로 니세이에게 통역해주었고 니세이는 이를 받아 영어 심문서를 작성했다.

한편 노획 북한군 문서를 영어로 번역해내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전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노획 문서는 일차적으로 영어 번역이 가능한 한국군 요원이 맡았다. 이 작업은 언어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보를 다루는 미군 전문가와 한국어 해독이 가능한 미군 언어 전문가 두 사람의 철저한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번역 작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G-2 지휘 보고 문서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직접 번역을 맡을) 한국인 26명이 즉각 보충되었음. 맥아더 사령부의 요청을 받은 워싱턴의 미 육군부가 육군부 내의 민간인 군무원, 한국계 미국인 병사, 재미 한국인들로 구성된 번역 그룹을 보내준 것임. 현재 맥아더 사령부의 군사정보국이 영어로 번역하는 노획 한국어 문서의 80%가 이 번역 그룹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렇다면 나머지 20%의 한국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전쟁 초기에 활약한 니세이와 한국인들이었다.

‘나머지 20%는 전쟁 초기부터 번역을 위해 고용된 일본인과 한국인 그룹이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이 일본 번역문은 군 번역 요원과 민간인 번역가들이 최종적으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음.’

한국전쟁에서 니세이의 역할은 결코 부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전략 자산이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에 투입된 니세이의 정확한 숫자는 밝혀져 있지 않다. 니세이 대부분이 군사정보국 소속이었고 수백 명의 군사정보국 요원이 한국전쟁에 투입되어 활동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에서 니세이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처럼 한국전쟁에서 니세이의 역할도 간과하기 어렵다.

문서 출처

파일 Int. Rpt #KG 0031-0057

문서군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시리즈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콘텐츠ID CNTS-00060429053

파일 G-2 Staff section report, Intelligencg digest - GHQ, FEC, Mar 1952

문서군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 -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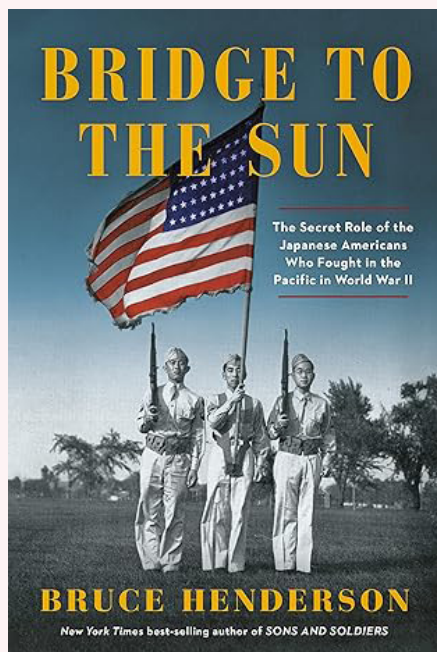
시리즈 Command Reports 1949-54 - GHQ, FEC, UNC

콘텐츠ID CNTS-00130022548

미 군사정보국 언어학교(MISLS)와 ‘키베이 니세이(歸米二世)’

1940년대 초반 해도 미군 내에서는 언어 전문가(linguist)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 현 국방부의 전신인 전쟁부(War Department)는 혹 있을지 모를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해 미국 내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다. 일본계 미국 시민 가운데 일본에서 일정 기간 지낸 경험이 있는 일부 학생, 선교사, 교사, 사업가 등 극소수 인원을 빼고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자를 찾기가 힘들었다. 일본계 2세인 니세이 3,700명 가운데에서도 언어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약 3%에 불과했다. 전쟁국은 부랴부랴 2,000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일본어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군사정보국 언어학교(MISLS,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Language School)’였다. 1941년 11월 1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약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의 크리스 필드(Crissy Field) 해안에 방치되어 있던 비행기 격납고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다. 4명의 니세이 교사가 60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학생 60명 가운데 58명이 니세이였고 백인은 두 명뿐이었다. 니세이는 미국에

서 나고 미국에서 자랐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일본의 제도 교육을 받으며 현지 경험을 한 덕에 모국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일본어가 그만큼 유창했다는 뜻이다.



태평양 전역(戰域)에서 군 언어요원으로 비밀 정보 업무를 수행했던 ‘니세이’ 6명의 전쟁 경험을 기록한 브루스 헨더슨의 책 <태양으로 가는 다리> 표지.

재미(在美) 일본 이민자 1세대(Issei, 一世) 중에는 1930년대에 자식들인 니세이를 일본으로 보내는 이들이 많았다. 일본에 가 교육도 받고 친척들과 같이 지낼 기회를 찾던 것이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이들도 있었고 대학까지 진학했던 이들도 있었다. 일본에서 교육받은 이들 가운데 몇 년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키베이 니세이(帰米二世)’ 또는 줄여 ‘키베이’라 불렀다. 대부분의 니세이들은 미국에서 나서 미국 시민으로 자라며 부모들이 쓰는 일본말을 어깨 너머로 배웠다. 이른바 ‘부엌에서 배운 일본어(kitchen Japanese)’이다. 이들에 비해 키베이는 일본 교육 덕에 일본말이 유창했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엘리트 그룹이었다. 브루스 헨더슨(Bruce Henderson)이 2022년 출간한 <태양으로 가는 다리: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에 종군한 일본계 미국인들의 비밀 임무(Bridge to the Sun: The Secret Role of the Japanese Americans Who Fought in the Pacific in World War II)>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섯 명의 키베이가 미 군사정보 요원으로 태평양 전역(戰域)에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미군 신분으로 모국인 일본의 패전을 위해 정보전을 수행했던 젊은 키베이들의 숨겨졌던 이야기를 담았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 서부에 있던 샌프란시스코 언어학교는 안전 지대인 미 중부의 미네소타주로 이사를 간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8월, 태평양 전

역(戰域) 내의 일본어 군사 언어 전문가는 1,800명이 넘었다. 장교가 425명이었고 사병이 1,400여 명이었다. 미네소타 군(軍) 언어학교의 규모도 전쟁 초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성장해 있었다. 종전 이듬해인 1946년에 언어학교의 일본어 전문 교사 숫자는 160명이었고 학생은 6,000여 명이나 되었다. 교실 숫자만 125개인 대형 교육 기관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언어학교 졸업생 6,000여 명은 태평양 전선 곳곳으로 배치되어 일본어로 된 군사 지도, 전투 명령서, 전쟁일지, 교본 등을 번역하고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했으며 일본인 전쟁포로들을 심문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미군 역사상 적과 교전하기도 전에 적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았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모국이자 적국인 일본을 상대로 활약한 니세이의 덕이라는 것이다.

누리집에서 NARA 자료 이용하기

(www.nl.go.kr)



키워드 검색하기(Searching)

- 1 키워드 입력 및 검색
- 2 자료유형 '해외한국관련자료' 선택

디지털컬렉션 탐색하기 (Browsing)

- 1 디지털컬렉션
- 2 해외한국관련자료

아이템 검색하기(Searching)

- 아이템 검색은
목차 검색으로 이용가능

- 1 디지털컬렉션
- 2 해외한국관련자료
- 3 문서검색
- 4 목차/초록 선택
- 5 키워드 입력 및 검색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268-14

ISSN 3058-8197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